

# 호남고속철 인근 대형 싱크홀 은폐 시도

고려시멘트 측이 지하에서 석회석 채굴이 이뤄지고 있는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건동광산 인접 농경지에서 발생한 대형 자반침하(싱크홀) 현장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모시기가 시작되는 6월이면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싱크홀이 발생할 때마다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는 고려시멘트 측은 앞뒤가 안 맞는 '자기당착(自家撞着)'적인 행위를 반복하면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고려시멘트 측은 싱크홀 발생은 광산 채굴과 직접 관련이 없다 고 용역조사 자료등을 인용하며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싱크홀 긴급 복구작업과 함께 피해 농민들에게 경작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주민들의 입을 막는 모순된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장성 황룡면 와룡리 반곡마을 주민 김모(70)씨에 따르면 지표면 안전에 우려가 일고 있는 올해 들어 첫 발생한 문제의 싱크홀은 지난 6월8일 발견됐다.

이날 김씨는 수일 전 모시기를 마친 눈에 물을 대기 위해 이른 아침에 들녘을 찾았다가 폭 8~9m, 길이 4~5m, 깊이 2~3m 가량의 지반이 붕괴되면서 땅이 폭 내려앉은 커다란 구멍을 발견했다.

싱크홀은 건동광산 2경도(2면)로부터 직선(수평)거리 104m, 수직고(지하경도에서 지상까지 높이) 60m, 고속철과는 1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홍모(여)씨 소유로 김씨가 임차해 경작 중이었다. 이날 싱크홀이 함께 발생한 옆 논은 고려시멘트 최대주주인 강모씨 소유로 확인됐다.

당시 싱크홀을 발견한 김씨는 즉시 이 사실을 고려시멘트 측에 알렸다.

김씨는 "신고 받은 고려시멘트 측에서 보상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싱크홀 발생 사실을 덮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고려시멘트측에서 올해 농사를 안 짓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제안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고려시멘트 측에서 보상을 해 주면서 이장님(김씨)만 알고 덮어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복구)동시에 도장을 받아 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마을 대표로서 경작 보상도 중요하지만 와룡리 농경

## 싱크홀 발생 때마다 고려시멘트 모순 행위 지속 "관련 없다" 주장하면서 현장복구·보상 반복

지에서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후 장성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고려시멘트 측의 싱크홀 발생 은폐 시도도 문제지만 막무가내 식 복구 작업도 원성을 사고 있다.

농작물 지장물 보상을 마친 고려시멘트 측은 김씨에게 원상복구 작업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김씨는 논 주인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말 것 요구했지만 고려시멘트 측은 주말을 이용해 싱크홀 복구를 강행했다.

실제 고려시멘트 측은 주말인 6월10~11일 싱크홀이 발생한 농경지에 레이콘과 펌프카를 동원해 몰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물질)를 강제 주입해 빈 공간을 메우고 흙을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시멘트 측 관계자는 "싱크홀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서둘러 일방적으로 복구를 강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작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복구를 했다. 광산 채굴과 싱크홀 발생은 연관성이 없지만 당시 싱크홀이 동시에 발생한 오른 쪽 논은 회사법인 땅이어서 주민 안전과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권자인 토지 소유주로부터는 동의를 받지 않은 가운데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 권한이 없는 임차농에게만 동의를 받고 복구를 강행한 부분은 논란을 낳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우리는 1학년 경기지역 일선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일인 28일 오후 경기 수원 동수원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예비 1학년 어린이들이 새로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 금호타이어 노조 '구조조정 저지' 상경 투쟁 돌입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선다.

28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노조원 1000여명이 29일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와 주재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노동조합의 '10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청원서를 전달한 뒤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호남권 지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월27일부터 채권단에 의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사측이 지난 12일 노조에 생산직 191명 정리하고, 임금총액기

준 30% 삭감, 일반직 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안 등의안을 제시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자구계획안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산업은행에 전달할 10대 요구안은 ▲중공공장을 매각 후 국내공장 증설 ▲안정된 영업이익을 창출해 온 국내공장 구조조정 중단 ▲국내 구성원의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기 악성채무 출자전환 후 재무건전성 확보 ▲해외매각 금지 협정서 발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즉각 실시 ▲노사 공동 경영 보장과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복지·고용관련 중장기 대안 제시 ▲하도급비리 청산과 지역 소상공인

진출 보장 ▲노사 공동 금호타이어 미래 비전 3.0 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재권은행인 산업은행이 10대 요구안을 반영해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여수 연도해상서 밍크고래 흔적

여수시 남면 연도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죽은 채 흔적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오후 2시 40분께 연도 동쪽 500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여수선적 정지망 어선 Y 호(24t)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박 모(60) 씨가 발견해 들산 해경과 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요청과 함께 들산 근내항으로 옮겨진 밍크고래의 외부에 자살류 등 포획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고래는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박 모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인계 했다.

흔적된 밍크고래는 길이 4m 20cm, 둘레 2m 30cm가량의 크기로 확인됐다.

이 고래는 울산 수협에 550만 원에 위탁됐다.

한편 여수 해상에 올해 흔적된 고래류는 총 9마리로 그중 밍크고래가 8마리, 범고래 1마리다.

여수=송기홍 기자

## 영세상인 두번 울린 불법대부업자 검거

제주 서귀포시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조직폭력배 A(32)씨 등 3명과 불법 대부업자 D(38)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원인 A씨와 C(30)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음식 배달원 등 7명을 상대로 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10일마다 연 400%의 이자를 받는 식으로 1080만원 상당의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조직원 B(31)씨는 취약계층 33명을 상대로 원금의 4~20%를 선이자로 공제한 뒤 10일, 15일, 30일마다 연 50~400%의 이자를 받아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체부자 중 유흥업소 종사자 F(여·21)씨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협박하며 불법으로 채권을 받아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D씨는 서귀포 내 영세 사업자 5명을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연 이자율 304~257%에 따른 이자 1억3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연 25%)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특히 체부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서울 공사장 크레인 버스 덮쳐 1명 사망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져 60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서모(53·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버스는 버스기사를 포함해 총 1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이 굴착기를 들어올리던 중 크레인 붕괴가 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굴착기와 공사 현장 책임자,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길 5

광산구